

저스템, 플라즈마 전문기업 '플람' 인수... 사업다각화 발판 마련

▶ 전략적 M&A를 통해 다양한 성장산업에서 시너지 창출 기대

<2023-03-20> 저스템(417840, 대표이사 임영진)이 플라즈마 전문기업 플람을 인수해 태양광 및 디스플레이 소재 세정장비를 개발하며 사업다각화를 통한 제2의 도약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저스템은 이번 주식 양수도를 통해 플람의 유통주식 97%를 취득하게 되었다. 취득금액은 약 18억 원으로 플람을 저스템의 자회사로 귀속시켜 사업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플람은 지난 2016년 설립돼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 성장성이 높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플라즈마 세정기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사용중인 플라즈마는 주로 200도 이상의 고온이므로 기판의 열변형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플람은 자체 개발한 특화된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60도 이하의 저온 공정을 가능하게 만들어, 기존의 열변형을 제어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플람은 자체 플라즈마 기술과 관련된 3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플람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에 위치한 글로벌 최대 박막 태양광 제조업체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습도제어 솔루션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저스템은, 이번 플람과의 전략적 M&A로 미세 오염물질을 제어하는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한단계 높아지고 향후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저스템은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태양광, OLED외에도 바이오, 2차 전지, 섬유 분야에서도 미래 선도기술로서 확장성이 높아 회사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영진 대표이사는 "제조공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은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기술"이라며 "이번 플람의 인수를 통해 기존의 태양광 및 디스플레이 사업 분야 외에도 향후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